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모두 <새롭게 할 것>이 있다. 차원 높여서 할 일들이다.
2. 새롭게 안 하면 작년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면 차원 높여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새롭게 누리고, 새롭게 얻고, 변하고 이상적이다.
3. 새롭게 해보니 ‘고생’이 덜 된다. 새롭게 하니 훨씬 재미있고, 훨씬 이상적이고, 훨씬 유익이 많다.
4. 삶의 세계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못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된다.
5. 꼭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나서 죽을 때까지 <더 새롭게 할 것>을 무한대로 주셨다.
6. <배우는 것>도, <신앙의 세계의 설교>도, <사는 것>도 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더 이상적으로 사는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치에 길이 들어서 살고 있다.
7. 더 올라갈 수 있다. 집 짓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더 이상적으로 짓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집을 또 짓고 사는 것이다.
8.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늘 더 좋게, 더 이상적으로,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무한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것이 있으니 새롭게 하라.

9. <말씀>도 끝이 없다. ‘무한한 단계’ 까지 있다. 육에 만족하는 단계, 혼계의 단계, 영계의 단계, 하나님 단계, 무한한 단계로 되어있다. 꼬집어내면 무한한 단계가 한없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도 그러하다. 찾아보면 또 있다.
10. <수석>도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얻은 것이다. 강에서는 이미 벌써 사람들이 찾아가고 주워가서 없지만, 이미 찾아가고 주워간 사람 중에 있으니 찾아보자 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단상에 갖다 놓았다. 하나님 것은 우리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준 것은 섭리인들에게 다 준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 머리 쓰면서 찾으면 있다.
11. 자꾸 새롭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노련하게 해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더 도전하고 더 이상적인 것을 향해서 자꾸 해야 된다. 해보는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 한다.
12. <사람 다루고 관리하는 것>도 작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어렵도 없다. 사람은 시간 따라 흘러가고 있다. 가령 물 위에서 어린아이가 이 시간은 여기에 떠내려가고, 저 시간은 저기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하던 방법으로 하면 구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는 ‘더 차원 높은 세계’ 로 <관리>해야 된다.
13. 노련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된다.
14. 새롭게 하려면,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명>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서 상도 있고, 보람도 있고, 영원하신 성령님과 주와 같이 기뻐하고 즐겁다.
15. 주와 같이 기뻐하며 살려면 첫 째는 <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둘 째는 <노력>하고 <연구>하며 노련하며 멋있게 아름답게 웅장하고 신비하게 해야 된다.

16.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한다.

17. <지혜로운 자>는 아주 뛰어나게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미련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선생이 미련한 자와 같이 갔으면 이 길을 오지 못했다.

18. 선생을 보고 사람들은 ‘바보다.’ ‘미쳤다’ 했다. 그러나 선생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바보짓을 한 일이 없다. 이 길은 바보 길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 냈다.

19. <집 짓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은 본인이 지어야 된다. 세상 육적으로 따지면 애인도 자기가 골라야 최고 좋은 사람을 고른다.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골라주는 사람이 좋다. 무조건 하나님이 골라줘야 된다. 하나님이 같이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 영영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지어야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선생>은 하나님이 구상한 것을 ‘심부름’ 한 것이다. ‘심부름’도 보통 사람은 시키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궁궐을 짓는데 같이 지었으니 굉장한 것이다.

20. 우리는 하면 할수록 차원이 높아진다.

21. <새로운 것>이 한없이 있다. 무한대로 있다. <설교>를 해봐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또 한다. 계속 한다. 주는 하나님과 일체되어 하기 때문에 끝없는 말씀이 나온다.

22. 올해는 육과 영, 두 가지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한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다.
23. <설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연결이 안 된다. 새롭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늘 행하면 안 잊어버린다.
24. 해보니 행하는 건건마다 <새롭게 할 일>이 있다. 연구하고 노력하니 새롭게 할 것이 너무 많다. <새 관리>를 한 대도 그러하고, <생명 관리>하는 것도 새롭게 더 차원 높여 관리를 해야 된다. 옛날식으로 해서는 변화가 안 된다. 더 크게 웅장하게 새롭게 해야 변화도 크게 일어난다.
25. 새롭게 해야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
26. 저마다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꾸 해야 된다. 사사건건마다 새롭게 하면 다른 세계다.
27. 지난 날 것은 원시인들이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니 훨씬 변하고 좋고 힘들지 않고 한다. 눈이 잔뜩 와서 <썰매>를 타러 올라갔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니 너무 힘들었다. 타고 내려오는 데는 15초면 끝나는데 올라갈 때는 3~4분을 올라가니 7~8배나 더 걸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없나?’ 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계속 연구해서 골프차를 이용해서 평지에서도 썰매를 달리게 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하라는 것>이다. 사사건건마다 새롭게 할 것이 있다. 새롭게 안 하면 또 고생이 많고, 다치고 넘어진다.

28. 벌써 새롭게 해서 얻은 것이 많다. 새롭게 하니 그렇게 얻는다.
29. 생활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마다 풀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모두 얻으리라. 안 하면 못 얻는다. 어떤 사람은 벌써 새롭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니 옛날 2020년 선(線)을 타고 또 가고 있다. 선생은 연구해서 한 선 높이 가고 있다.
30. 선생은 설교할 때 이미 일주일 전에 행하고 가르친다. <머리>라 먼저 한다. 개구멍을 지나갈 때 머리가 항상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머리>가 먼저 행한 다음에 <몸>이 행하게 하는 것이다.
31. 확대시키면 선생은 작년에 행하고, 올해는 섭리인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자신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작년도 행해서 많이 얻었다. 그것은 선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섭리인들과 같이 쓰는 것이다. 혼자서 못 다 쓴다. 같이 써야 된다.
3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의 주권권>에 들어와야 주와 같이 먹고 즐기며 같이 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답이 없다. 주에게 오면 같이 누린다. 그런데 주께 안 오는 자가 있고, 잘 오는 자가 있다. 주는 했냐, 못했냐만 따진다.
33. 선생을 보통으로 봐서는 안 통한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보통으로 보느냐. 어림도 없다. 손가락에 꼽히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통으로 했겠느냐. 사람은 겪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겪으며 온 것이다. 대둔산에 가서 21년 동안 살아보아라. 집에서 하루저녁에 기도해보는 것도 하기 힘들 것이다. 선생은 기도와 말씀만 20년 동안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세계적으로 믿고 따라오게 만들었다. 다른 종교는 모두 가다 없어지고 뒤집어졌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끄떡도 없다. 절대

적인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꼭 잡고 붙잡고 있으니 안 넘어지는 것이다.

34. 선생이 <실패한 신앙>을 넣어줬다면 초반부터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신앙>을 넣어주었다. 선생은 이미 미리 행하고 외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다. 안 해보고 어떻게 외치겠느냐.
35. 선생은 세밀하게 배운다. 배운 것을 청중 앞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시원찮게 배우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은 먼저 배우고 머리가 돼서 행하고 확실하면 전해준다. 산에서 20년 동안 배운 것이 확실하니 전해준 것이다. 세상의 성경학자들은 어림도 없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다. “초반부터 재림을 가르치겠느냐. 안 가르친다. 초림 끝나야 재림 역사 일어나서 그때 가르치는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안 믿는다.’ 하며 속으로 웃는다.
36. 주는 미리 행하고 섭리인들을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것이다.
37. 지금 영계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지나간다. 노래할 때도 영계에 들어가서 한다. 하나씩 단어를 주면 노래한다.
38. 선생은 약속대로 한다. 올해는 매일 시 쓰기, 매일 노래하기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다. 이는 쉬운 것이 아니다. 의무적으로 쓰는 것은 안 쳐주고, 읽어보고 깜짝 놀라고 성령이 함께 했다 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이다.
39. 작년도는 이미 축소해서 받았다. 하나님 성령님이 수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한다고 가르쳐주면서 수석을 확대 시켜서 만 배, 백 배, 천 배 큰 것으로 주셨다.

40. 주는 <지혜자>다. 그러니 5만 잠언을 썼다. 이 잠언 속에 오만 가지 다 들어있다. 스스로 읽어봐도 통탄하고 감탄하는 잠언이 있다. 잠언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익을 받았다. 지혜를 받고 1300편의 노래를 작사 작곡 하여 부르고, 반복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깊은 설교를 42년 동안 수만 번 외쳤다. 그리고 1년에 120만 명 씩 오고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만들어놓았다. 이와 같이 차원 높여 새롭게 살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41. 올해는 정말로 새롭게 해야 된다. 수십만 배 크고 이상적인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는 방법>을 1년 동안 그때마다 가르쳐줄테니 그리하도록 하라.
42. <기성>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지만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어떻게 오는 것을 모르면 빗나가서 빗나간 길을 한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온다는데 어떻게 올 것을 몰라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매일 울고 있다. <하나님의 강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43. 한 기독교 다큐멘터리에서 “절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더 이상 육신은 살 수 없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또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산다.” 고 하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저래서 내가 답답한 것이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왔느냐? 나로 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왔냐? 세례요한이 왔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온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도 온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이다. 나와 같이 확실

하게 말하자.” 하셨다.

44. <주의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느냐. 선생은 설교할 때 연습하고 오지 않는다. 생활하고 와서 하고, 이미 있는 것을 말하니 아닐 수가 있겠느냐. 성경의 앞뒤를 다 알고 통달했다. 또 이를 빼놓고서도 새로운 역사가 오고서 이 시대 말씀이 5만 절도 더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이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안 따라오고, 아는 사람만 날아다니며 백 배 만 배 잘되며 좋아서 따라오고 있다.
45.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역사도 새로운 역사는 새롭게 가야 된다.” 하셨다.
46. <가나안 혼인잔치>는 선생이 이미 30년 전부터 설교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있는 것을 비유했다.” 하셨다. 그 시대 풍속을 따라 혼인잔치 비유를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왜 비유를 하는가 하니, 이와 같이 이러하다는 것이 계시니라. 절대 혼인잔치 하듯이 절대법칙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다.
47. 예수님은 원시인 시대에 원시인으로서 태어났다. 그때는 2천 년 전 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원시인인 것이다. 한국도 50년 전만 해도 원시인 생활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을 왜 못 푸는가 하니 이들이 이 시대 식으로 풀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식에서 내가 보고 얘기했으니 그 시대로 원본 갖고 풀어라.” 하셨다.
48. 옛날에는 족속 마다 모여 살며 풍습이 달랐다. <월명동 풍습>과 <석막리 풍습>이 다르고, 주관이 달랐다. <월명동 사람>은 교회 다니는 풍속을 갖고 있고, <석막리 사람>들은 불교 풍속이 있었

다. 그 풍속대로 월명동 사람이 다 잡았다. 경제도 잡고, 권세도 잡고, 하늘 권세를 잡았다. 이와 같이 <갈릴리 풍속>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으니 예수 믿는 풍속이었다.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달랐다. 절대적인 풍속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한 것이다.

49. <혼인잔치> 비유로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나타낼 수가 없고 못 나타냈다. 선생도 비유를 쓸 때 비유로 다 못 나타낸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유’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벌써 육의 세계는 육이고, 영의 세계는 영이지 않느냐. 그래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이 부합돼있다. 절대적인 것만 절대적으로 비유했다.

50.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

51. <예수님 때>는 ‘그 시대 것’을 이야기했다. <이 시대 것>은 ‘이 시대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다.

52. <기도>도 새롭게 해야 된다.

53. <건강 방법>도 새롭게 해야 된다.

54. <전도>가 그렇게 크다. 새롭게 해서 전도를 꼭 꼭 하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 3명 전도 하고 말면 자기 존재가 너무 너무 아깝지 않느냐. 10명, 20명, 30명, 100명, 200명, 500명 해야 된다.

<아픈 자 위한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화요일 날이면 늘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건강케 하기 위해서 약수도 떠서 보내주고, 기도도 해주니 오늘 또 단상을 통해 기도하니, 기도한 즉시에 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본인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다시 깨닫고 주를 다시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아프고 신음하는 각종 병들을 구출해주시고, 또 어떤 자는 또 세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 하나님이 인도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기 전에 영을 챙기면서 완전히 영을 만들게 축복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나아야 될 자들이 있으니 건강케 해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신도 그러하지만, 정신 세계, 마음 세계, 신앙 세계, 믿음의 세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건강케 축복해주시고, 모든 것, 경제적인 것, 사는 것, 모든 진로 문제 이런 것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행하시겠냐. 믿고 맡기며 힘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각종각색으로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 지어다. 그리고 모두 아픈 것, 병든 것, 사탄과 귀신들 가입하니 다 없어질지어다. 다 정결케 해주시고, 모두 풀어주시고 성령이 한 명 한명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해주고 하니 늘 이를 깨닫고 나와 같이 해주니, 구원자와 같이 해주니 걱정 말고 잘 하도록 하라. 잘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낫기를 기도하며 사탄과 귀신과 악령들도 없어지며 건강할 지어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고, 성령이 낫게 해 주시고,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주시옵소서. 원하오니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약수물 먹고 자꾸 나아지며 그리고 건강케 되며, 또 코로나 이런 것도 스스로 조심해서 걸리지 않게 아주 극적으로 새롭게 조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오니, 모두 잘 되고 형통할 지어다. 원하오니 깨끗케 지고, 강건함을 받으며, 믿음대로 강건케 될 지어다. 아멘.